

## 미래 원자력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자

신 원 기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사, 석사, 박사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안전센터 책임연구원(1978~198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획부장, 규제부장령가부장, 심사부장, 검사부장, 전문위원, 검사총괄실장(1985~200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2005~)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르네상스가 자주 이야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자력산업 측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그 동안 침체되었던 원자력 발전 산업이 각국의 에너지 수요, 화석 연료의 유한성과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주요 원자력 관련 기관의 CEO들도 원자력이 경제적인 에너지이며 에너지 안보와 깨끗한 환경 보존에 기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자력 르네상스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고급 인력 양성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이를 기회로 세계 원자력 시장에 진출하고 국익의 창출을 위하여 지혜를 모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계가 이러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의 원자력산업은 규모 면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며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4세대원자로국제포럼(GIF),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다국간설계평가프로그램(MDEP) 등 여러 가지 국제 공동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보다 확대하고 국제 사회에서 원자력 강국의 위상을 견고히 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일 것이다.

지난 9월 17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제51차 정기총회의 키워드는 바로 '미래 원자력을 위한 준비'였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기조 연설에서 지난 반세기의 원자력을 돌아켜보고 현재까지

의 성과와 향후 도전 과제를 언급하면서 2020년을 준비하는 정책 검토(the '20/20 review')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총회 기간 중 「향후 25년의 원자력 개발과 도전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제10회 과학포럼(Scientific Forum)에서는 세계 각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미래 원자력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원자력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총회 본회의에 제출된 보고서는 향후 25년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기술(발전 및 방사선 이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나, 가장 큰 도전 과제로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 인프라 미흡', '안전에 대한 대중 신뢰 문제', '핵확산 우려' 등임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수석 대표로 참석한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는 총회 첫 날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원자력'이라는 제목의 기조 연설에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 인력의 수요에 부응토록 하기 위하여 현재 원자력 안전기술원(KINS)의 원자력안전학교를 '국제원자력안전학교'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은 많은 호응을 보였으며 IAEA 사무국과 원자력 발전 도입을 추진하는 각국의 규제 기관장들이 우리 대표단을 찾아와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는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리드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좋은 사례라 하겠다.

국제 사회는 얼마 전부터 우리를 기술 원조 대상국이 아닌 기술 공여국으로 생각하고 협력을 요청해오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미래 비전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원자력 르네상스는 우리에게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미래 비전은 전 구성원이 공유하는 '살아있는 약속'이어야 하며, 이를 지켜내고자 노력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 그러기에 비전은 자신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미래 원자력을 위하여 원자력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조화로운 비전과 이를 이끄는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 비전은 전 구성원이 공유하는 '살아있는 약속'이어야 하며, 이를 지켜내고자 노력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

그러기에 비전은 자신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미래 원자력을 위하여 원자력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조화로운 비전과 이를 이끄는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